

## 살림!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현교회 조광성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2023년 한해도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함께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팬데믹 이후 다시 찾은 일상에 몇 가지의 변화가 있었고(사역의 온라인화) 어려움도 있었지만(이단의 공격적인 포교활동과 고물가) 정상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진 첫해였습니다. 12월을 맞아 한 해 동안 기도와 선교비로 후원해주신 송현교회에 고개 숙여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현교회의 선교후원이 팔라완 현지에서 사역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서 올해의 사역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었고 사역의 열매 또한 풍성합니다. 선교편지를 통해 기쁜 소식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 ■철창 안에서 드리는 예배 - 이나가완 교도소 교회

사역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교도소 교회에 참석하던 수감자들과(안전등급 미니룸과 미디어룸의 수감자들)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교도소 측의 요청으로 철창 안에 갇혀있는 맥시멈 등급의(강력범) 수감자들을 위해 함께 매주 수요일 오후 교도소 내의 철창 안으로 들어가 예배와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 철창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9명으로 시작한 예배 참석인원이 지금은 33명으로 늘어났고, 포악하고 험상궂었던 수감자들의 얼굴이 순한 양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진지하고 열정적인 예배 자세로 은혜를 받아 사역하는 저와 바짝 목사에게도 큰 자극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요일마다 이나가완 교도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나가완 교도소 철창 입구



철창 안 다목적실에서의 예배



찬양을 드리는 수감자

한편 따갈록 성경책의 보급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 아내 유정아 선교사의 헌신으로 성경책 50권을 구입하여 수감자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너무도 열악한 필리핀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수감자들의 생활을 돕는 사역이기에 비누, 치약, 의약품 등의 기본 생활용품들을 비롯해서 물품과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쓸 것, 먹을 것 등을 줄이고 또 줄여 감당하고 하지만 늘어난 사역과 재정을 감당하기 벅차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하기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나가완교도소교회 주일예배



준비된 페인트



예배당 페인트 작업 중인 수감자들

지난 12.4일부터 이나가완 교도소 예배당 페인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내외부의 페인트가 오래되어 벗겨지고 낡아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12월 10일 감사절 예배 전에 페인트를 칠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 딸아이가 이 소식을 듣고 페인트 값을 보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끝으로 선교비가 끊긴 곳이 3곳이나 있어서 선교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민하고 있다는 저희의 소식을 들은 딸아이의 배려이고 헌신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눈 딸아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예배당 바닥을 포함해 내외부 벽과 천정에 페인트 작업을 마치고 나면 더욱 깨끗하고 새로운 분위기의 예배당으로 단장이 될 것입니다. 기대가 큼니다.

### ■돌아온 성도들과 교회의 회복 - 바라끼 원주민 교회

바라끼 원주민 교회가 개척설립 4주년을 맞아 축하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4주년 설립축하예배는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단의 물량공세로 인해 반토막 났던 교회가 살아 돌아왔고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작년말부터 시작된 이단들의 물량 공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도 윌리엄 담임목사님도 떠나는 성도들을 붙잡지 못한 마음이 안타까움을 넘어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떠난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교리공부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초생활도 어려운 극빈자의 자녀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라끼 교회가 위치한 바랑가이와(동) 무니시팔(읍)에 소재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며 목사님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아볼란 교회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연합으로 이단에 대처하였습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 저와 윌리엄 담임목사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렇게 8개월 가량 피땀 흘려 사역한 결과 떠난 성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조금씩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번 교회설립 4주년 축하예배에는 떠났던 성도들이 상당수 돌아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끼교회 축하예배후 축복기도



축하예배 후 사진



바라끼교회 성도 가정방문

교회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 즉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죽게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값진 공부를 했습니다.

바라끼 교회가 이단에 맞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단에 맞서 영적인 싸움을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 해주신 송현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현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빈번하게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아볼란 목회자 연합체를 구성하여 연합으로 이단에 대항하게 하는 일들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 청소년 리더로 성장하는 - 엘살바돌 원주민 교회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엘살바돌 원주민 교회의 특징은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유능하고도 신실한 크리스찬 리더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보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NGO 단체인 ICM과 연계하여 매월 마지막 주에 ‘기독교 리더십 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하나님 이해와 자기관리, 문제해결 등등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한 15명의 청소년들의 자세와 반응이 좋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살바돌교회 청소년 리더십 스쿨



주일예배 간증 순서



주일예배 후 식사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8월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청소년 캠프를 가졌고 오는 12.18~19에는 바닷가에 위치한 시설을 빌려서 하반기 청소년 캠프를 가질 계획입니다.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이들의 또 다른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또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응원해 줄 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여 예배 후에 서로 나누기에 여러 가지로 교회에 유익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12.18~19일의 하반기 청소년 캠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큼니다.

### ■그 외의 사역들

- 청년 비보이 경찰임관 축하예배(10.18) : 이나가완 교도소 수감자의 아들로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거쳐 경찰로 임관한 최초의 학생
- 따구사오 교회 임원수련회 : 10월 15일 교회를 방문하고 임원수련회 강사로 세미나 진행
- 발데스 목사 도움 : 이나가완 수감자 목사로 통역으로 수고하던 발데스의 뇌졸중 치료 도움을 줌
- 라다운 원주민 교회 탐방과 아웃리치 (10.10)
- 팔라완 전체 교도소 교회 연합회(IPCF)의 리더로 (총7명) 임명받음(10.29)
- 이화익 교도소 부흥회 인도 : 11월 24일~26일 이화익 교도소 부흥 집회 인도
- 몬티블 교도소 방문 및 예배 (11.5)
- 썬타루치아 교도소 방문 및 예배 (11.12)
- 팔라완 경찰청의 초청으로 월요일 아침조회 기도를 인도하였습니다.(12.4)



[이화익교도소 부흥집회인도](#)   [라다운 교회 아웃리치](#)   [비보이 경찰임관 축하](#)   [따구사오 교회 재직회](#)

###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상하의 나라에서는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없고, 지역적으로 적도 가까이에 위치해서 해가 일찍 저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팬데믹 이후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첫째 2023년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함께 나누지 못한 수많은 순간과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올해도 그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며 힘이 되어주신 송현교회 조광성 담임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삶과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송현교회와 조광성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며 열매도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2024년 새해에도 건강하시시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 바라끼 교회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2. 상반기 이후로 선교비 후원이 끊긴 곳이 3곳이나 있지만 새로운 후원자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3. 이나가완 교도소에 의료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 이나가완 교도소 철장 예배가 수감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되도록  
(따갈록 성경책 50권과 지속적인 생활용품들)
5. 시니어 선교사로서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6. 이나가완 교도소 교회의 충성된 바닷목사와(Fred Batac) 사모님의 건강
7. 두 딸 민주는 민주영의 신앙성숙과 배우자
8. 엘살바돌 교회 청소년 리더십 학교와 캠프를 통해 기독교 리더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2023. 12. 16 팔라완에서 민동근 유정아 선교사 올림-